

CATHOLIC ARCHDIOCESE OF OSAKA

24-22 TAMATSUKURI 2-CHOME,
CHUO-KU, OSAKA 540-0004, JAPAN
TEL 06-6941-9700 FAX06-6946-1345

천 주 교 오 사 카 대 교 구
540-0004 오사카시 중앙구 타마즈쿠리 2-24-22
전화 06-6941-9700 팩스 06-6946-1345

표지 포함 3 매 전송

2021 년 1 월 13 일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 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조치 (제 10 호)

+ 찬미 예수님

성탄절을 마치고 전례력으로는 연중 주간에 들어갔지만 오사카교구 내의 오사카 후와 효고 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발효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교회의 “가톨릭 교회에서의 새로운 감염 발생 지침”(이하 “지침”)에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회중이 참여하는 미사는 잠정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사태 선언은 이벤트 개최에 대해 최대 5,000 명으로 하되 수용률 50%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당 미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부탁해온 대책의 범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교회에서의 주일 미사는 불요불급한 모임이 아닌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8 월 15 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인 로버트 사라 추기경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승인받은 전세계 주교회의 의장에게 보낸 서한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인성과,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선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례 거행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오늘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이들을 향하여 하느님께서 하신 살아 있는 말씀이 됩니다.

- 우리는 십자가 희생제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에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바치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당신께 결합시키시어 인류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품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빛과 위안을 찾습니다.
- 우리는 성찬의 만찬 없이, 곧 우리가 자녀로, 형제자매로 초대받은 주님의 식탁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식탁에 모여, 천상 양식 안에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이 지상 순례의 기쁨과 어려움 중에 힘을 얻습니다.
- 우리는 주님의 가정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자매들과 하느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나누고, 성소와 성덕을 추구하며, 나이와 개인사와 은사와 성소의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 우리는 우리의 집인 주님의 집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태어난 곳, 주님의 섭리적 현존을 발견한 곳, 좌절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로운 품을 발견한 곳, 혼인에 대한 그리고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를 축성한 곳,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기뻐하고 눈물 흘렸던 곳, 지상의 순례를 마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렸던 거룩한 장소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주님의 날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곧 노동의 날들 다음에,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에 빛과 의미를 주는 주일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사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오사카교구로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지합니다.

1. 본당 주일 미사에 대해

- ① 지금까지와 같이 기본 대책(손 소독, 마스크 착용, 환기, 연락처 파악, 성가를 포함한 발성을 가급적 자제, 가능하면 2m 이상 적어도 1m의 거리를 두고 앉기, 입당시 체온 측정 등)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 ② 미사의 전례자와 봉사자도 미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청각장애자와 고령자를 배려하여 회중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경우나 설교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③ 주일 미사에 대한 참여 의무는 교구의 모든 분을 대상으로 면제하므로 미사에 대한 참석 여부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당에서 공개 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본당 미사에도 참석하지 마십시오.

- ④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책을 철저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임원이나 담당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도 포함) 또는 각 장소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미사를 중지하십시오. 그럴 경우 사제는 “주일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교회법 535조 제1항)는 조항에 따라 본당 신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또한 주일 미사가 어떤 형태(온라인 전송 또는 통신문 등)로든 신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궁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본당 주일 공개 미사를 중지하려면 책임자인 사제가 블록 모데라토루 사제, 지구 위원장, 교구 사무국에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2. 본당 이외의 수도원이나 시설에서의 미사, 그리고 본당에서의 평일 미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 가운데 책임자의 판단 아래 실시 가능합니다.
 3. 미사 이외의 모임은 긴급사태가 발효된 오사카 후와 효교 현의 본당에서는 긴급사태 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중지 또는 연기하십시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소규모로 제한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정부에 의한 긴급사태 발령임을 감안하여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은 의료 붕괴 등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위기감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소한의 교회 생활인 주일 미사를 통해 감염 종식을 하느님께 간구하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합시다.

이상

※ 이 공지 사항의 주요 외국어판은 순차적으로 HP 에 게재하겠습니다.